

古代 韓國染色과 中國染色의 比較研究

경원대학교 의상과
趙 孝 淑

目 次	
I. 序 論	III. 古代 韓國의 染色
II. 古代 中國의 染色	IV. 結 論 參考文獻

I. 序 論

近來에 우리나라 傳統染色 및 染織物의 歷史的 考察에 관한 몇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上代社會의 染色을 알 수 있는 實物은 거의 없고 문헌자료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上代社會 染色의 발전과정은 아직도 상세히 밝혀지지 않은 형편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上代社會의 染織史를 탐구하는 방법론으로 上代社會와 교류를 맺어온 아시아 주변국의 染織史를 考察하여 상호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필자의 첫번째 시도로 우리 服飾文化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中國染色을 우리나라 染色과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우리나라는 上代社會인 三國時代 이전부터 統一新羅까지로 하였으며 中國은 商代부터 唐代까지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중심이며 먼저 中國의 염색발달과정을 살핀후 우리나라의 염색과 비교 고찰하였다.

II. 古代 中國의 染色

1. 商周代의 染色

기원전 16世紀에서 기원전 8世紀 西周時代까지의 時期로서 青銅器文化를 발전시켜 도시국가를 이루었고 文字를 만들어 당시의 生活을 기록하였다.

中國染色의 최초의 記錄은 殷虛에서 발굴된 甲骨文字中 “𠄎, 𠄏, 𠄐”와 같은 象形文字이다. 이 文字의 부분적인 설명은 董彥堂이 말하기를 “𠄎”은 밧줄을 뜻하며, “𠄏”은 물건이 늘어드는 모양이고 “𠄐”은 양손으로 들어올리는 모양이라고 한다. 또한 商承祚에 의하면 “𠄎”은 양손으로 그릇을 操作하는 형태이고 “𠄏”은 그릇의 형태이며, “𠄐”은 비단을 의미하고 “𠄑”은 염액에 손을 넣어 조작하는것을 의미하고 “𠄒”은 염색하는데 사용하는 솔이라고 설명한다.” 이와같은 甲骨文字의 해석은 염색용 그릇에 염액을 담은후 비단을 늘어드게 넣어가며 손으로 操作하면서 染色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에 이미 浸染이 행하여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甲骨文字 및 金文字中에는 黃, 赤, 綠, 青, 紅의 色도 보이는바²⁾ 이것으로 미루어 商周代에

1) 陳維稷(1984), 「中國紡織科學技術史」, (科學出版社), p. 417

2) 앞책, p. 420

이미 5色の 浸染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 인 周代의 染色記錄은 「詩經」「尙書」「禮記」「儀禮」「周禮」와 같은 中國古典에서 찾아볼 수 있다.

「周禮」에는 “染人染絲帛”라 하여 “染人 이 실과 비단을 염색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染人”은 官廷의 專門官吏로서 염색생산과정을 관리하였다고 한다.³⁾ 이러한 專門家를 두어 다양한 색을 染色하였던 周代의 직물염색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염료의 이용을 들 수 있다. 「詩經·鄭風」에 “縞衣綦巾, 縞衣茹藹”라 하여 의복에 茹藹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茹藹란 茜草를 말하며 紅色을 물들이는 식물염료이다.⁴⁾ 「詩經·小雅」에는 “終朝采藍 不盈一擔”라 하여 “아침일찍 藍을 채취하였으나 한 공기만큼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여 藍의 귀함을 설명하였다. 「禮記·月令」에도 “여름철에 藍을 채취하여 염색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中國紡織科學技術史」에는 茜草와 藍이 商周代의 중요한 식물염료라 하였으며, 吳淑生은 茜草와 藍이외에도 紫色을 染色하는 紫草, 黃色을 染色하는 梔子, 黃色 및 綠色을 染色하는 薑草 등도 周代에 이미 사용된 식물염료라 하였다.

둘째, 礦物染料가 발달되었다. 당시에 광물염료는 繪畫 및 공예품의 도색이외에 직물의 浸染재료로도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최초의 礦物染料로는 赭石인데 옅은 黃色에서 暗紅色까지 염색되어 黃土, 赤土라고도 하였다. 硃砂도 중요한 붉은색의 염료로 그 광택이 순수하고 밝아서 직물염색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商代麻布와 平紋絹도 硃砂로 염색된 것이며 西周代에 出土된 염색직물중에도 硃砂染이 많으며 그 방법은 塗染, 浸染, 繪染한 것이다. 그밖에 石黃과 黃丹의 鉛礦石으로 黃色染料를 만들었고, 각종 天然銅礦石으로는

碧色과 綠色染料를 만들었다. 또한 이시기의 白色顏料로 胡粉을 사용하였는데 繪染의 색또는 花紋의 돌출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이었다.⁵⁾

셋째, 계절에 따라 染色작업을 구별하여 시행하였다.

「周禮·天官」에 “染人 掌染絲帛, 凡染春暴練 夏纁玄, 秋染夏, 冬獻功”라 하여 春夏秋冬의 염색작업을 구분하였다.

즉 봄이되면 노예들은 “染人”들의 감독하에 絹織物을 暴練(정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暴練을 위해서 주로 草木灰에 물을 부어 거품을 만들어 사용하며 이 灰汁에 7일동안 밤낮으로 천을 담갔다 말렸다하면서 섬유상의 잡물질을 제거하고 아울러 표백도 하였다. 이렇게 暴練한 絹織物은 여름 가을에 纁玄의 색으로 염색하고 겨울에 獻功하였다.⁶⁾

周代에 이처럼 염색의 時期를 중요시한 것은 植物染料의 사용이 많았기 때문이며 아직 植物染料의 보관법은 발달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多次浸染法을 사용하였다. 織物染色의 농도가 짙고 열음에 관한 요구가 틀렸으므로 필요에 따라 몇차례에 걸쳐서 套染을 행하였다. 「爾雅」에도 “一染縹, 再染赭, 三染纁”이라고 하여 3차례 染色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纁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같이 한가지 염료로서 농도의 변화를 갖기위한 套染이외에도 두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색의 染料로도 套染을하였다고 吳淑生은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周代에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古文獻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섯째, 浸染이외에 식물염료나 각종 顏料로 직물에 직접 描繪하였다. 「周禮」에 “帝王 王后의 衣服에 그림을 그렸다” “衣는 위에있고 陽이기 때문에 畫續하였고 裳은 아래에 있고 陰이기 때문에 繡를 하였다”⁷⁾ 「尙書」에 “五采를 그려서 繪로

3) 앞책, p. 82

吳淑生 田自秉(1988), 「中國染織史」, (南天書局), p. 45

4) 앞책, p. 46

5) 앞책, p. 46

陳維稷(1984), p. 77

6) 앞책, p. 83

吳淑生 田自秉(1988), 앞책, p. 45

7) 「周禮」天官 內司服

8) 「周禮」司服 賈公彥

하였다”⁹⁾는 기록이 있으므로 周代에 繪染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견고성이 없으므로 후대에는 점차로 印花浩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2. 春秋戰國時代의 染色

기원전 8世紀부터 3世紀까지의 時期로 이때는 여러 제후가 세력을 다투며 思想이 自由로와 諸子百家가 出現하여 學問이 크게 발전하였다. 따라서 服飾에서도 요구되어지는 색의 종류도 더욱 복잡해졌으며 染色法도 좀더 科學的 體系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時代 부터는 出土品이 나오기 때문에 문헌자료와 비교하여 좀더 확실한 織物染色을 고찰할 수 있다. 春秋戰國時代의 織物染色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藍染法의 발전으로 染色을 일반화하였다. 즉 前時期의 染法인 신선한 잎을 담갔다 그汁에 물들이는 방법은 새로운 요구를 맞추는데 이미 적합치 않았으며, 또한 浸染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웅덩이마다 담겨있는 염액이 자연적으로 醱酵酸化되어 진흙상태의 藍色 沈澱物이 생겨서 방치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이와같은 경험을 계속하던 중 酒糟를 이용해서 醱酵法을 터득하였고 醱酵에 의해 沈澱物 靛藍을 만들어 계절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藍染을 할 수 있었다.¹⁰⁾ 이는 중대한 발견으로 사계절 아무때나 염색할 수 있으므로 藍染 및 藍草의 수요를 촉진시켜 野生하는 藍草에 의지하던 周代와는 달리 전국 각지에서 藍草를 栽培하였다.

둘째, 紫染이 盛行하였다. 春秋戰國時代에는 紫色이 間色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君主가 愛用함에 따라서 신하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유행하였다. 「韓非子」에 “齊나라 桓公은 紫衣를 좋아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紫衣를 입었으며 紫色絹의

가격이 白色絹보다 五倍가 넘었다”고 하였다.¹¹⁾ 따라서 紫染이 齊國에서 많았을 것이며 「管子」에는 “山東東部 黃具東南部에 紫草가 있다.” 또한 「荀子」에는 “東海에 紫袿가 있다”고 하였으니¹²⁾ 그 당시에 紫草에 의한 紫染이 齊國에서 시행되었으며 그중에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山東지방에서 활발하였을 것이다.

셋째, 媒染工藝技術이 발달되었다. 植物染料中에 茜草와 紫草는 媒染劑인 靛藍 綠藍을 사용하여 더욱 그 染色法이 發展되었다. 「周禮」에는 “3번 염색으로 纁이 되고 5번 염색으로 緇가 되며 7번 염색으로 緇가 된다”¹³⁾고 하였는데 이것은 茜草色素에 紅色媒染染料로 染色하면 纁이 되고 靛藍等 交替媒染劑로 染色하면 緇(靑赤色)와 緇(黑色)가 된다는 의미로서¹⁴⁾ 당시에 黑色系의 색을 染色하기 위하여 탄닌산이 들어있는 植物染料에 靛藍을 넣어 黑色系의 탄닌철이 되도록하였다.¹⁵⁾

넷째, 型版印花法을 처음 사용하였다.

春秋戰國時代에는 顔料가 증가하고 織繡紋樣이 풍부하여져서 型版印花의 기술이 발전되었다. 즉 花紋圖案의 型版을 제작후, 塗刷色漿하여 布帛위에 찍어내어 花紋도안을 얻는 방법이다. 1979年 江西 貴溪의 戰國岩墓에서 발견된 苧麻織物이 가장 오래된 型版印花實物이며, 이와함께 印花染에 사용되었던 도구인 刮漿板, 板薄이 出土되어 그 당시에 型版印花染이 있었음을 증명하였다.¹⁶⁾

3. 秦漢의 染色

中國統一에 의한 최초의 統一帝國形成으로 春秋戰國時代以來 多樣하게 발전되어 왔던 中國文化가 서로 융합되고 종합적으로 발전되어 마침내 中國古典文化가 완성되었다. 織物染色工藝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과거에 사용된 浸染, 套染, 媒染의

9) 「尙書」 益稷

10) 吳淑生 田自秉(1988), 앞책, p. 64

11) 「韓非子」 外儲說左上

12) 陳維稷(1984), 앞책, p. 81

13) 「周禮」 考工記 鍾氏

14) 高漢玉(1986), 「中國歷代織染繡圖錄」(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23

15) 吳淑生, 田自秉(1988), 앞책, p. 64

16) 高漢玉(1986), 앞책, p. 23

陳維稷(1984), 앞책, p. 87

方法이 더욱 成熟하였고 아울러 새로운 염료 및 染法을 도입하였다. 湖南長沙馬王堆, 新疆民豐漢墓에서 出土된 여러가지 빛깔로된 아름다운 絹繡, 毛織物들은 2천여년을 묻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깔이 여전히 아름다와 당시 染色工藝의 탁월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색채가 풍부하고 화려한 織物을 만들기위하여 전문적으로 染色만을 다루는 기관을 두었다. 「三輔黃圖」에는 “未央宮에는 정련, 표백하는 방이 있으며 主掖庭은 직물을 染色하는 기관이다”라고 하였으며 「續漢書」에는 “平准令에서는 주로 정련 染色을 하였으며 彩色도 하였다”고 하였다.¹⁷⁾

秦漢의 織物染色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染草栽培가 증가하고 染料의 種類가 다양해졌다. 植物染料의 生産技術이 발전되고 수요가 증가되어 染草키우는 것을 業으로 삼는 사람이 나타났다. 「史記」에 “畝에는 梔子와 茜草를 심고 干畝에는 생강과 부추를 심었으니 이런자들은 모두 干戶候가 되었다”¹⁸⁾라하여 당시에 梔子와 茜草栽培가 수익성이 큰 작물이기때문에 전문적으로 재배되고있는 당시의 상황을 말해준다. 또한 東漢時代에는 藍이 이미 중요한 經濟作物이 되어 河南일대에는 전문적으로 藍을 생산하는 구역이 있었다. 紅花도 中原에서 전파되어온 후에 紅花栽培를 業으로하는 사람도 있었다.¹⁹⁾ 紅花는 서한대에 새롭게 사용된 식물염료로서 「博物志」에 張騫이 西城에서 들여와서 이때부터 사용된 紅色 染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黑色系 植物染料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져서, 橡實 이외에도 櫟實, 柿葉, 冬青葉, 栗殼, 蓮子殼, 鼠尾葉, 烏臼葉 등의 植物을 染色에 이용하였다.²⁰⁾

黑色衣 植物染料가 많이 사용된 이유는 「史記」에 “夏는 木德, 殷은 金德, 周는 火德으로 五德中 水德이 남는바 秦이 水德을 얻어 天下를 통치한다. 周의 火德은 赤色이고 秦의 水德은 黑色으로 黑이 赤을 滅하였으므로 秦은 黑을 숭상한다”²¹⁾고 기록되어있다.

礦物染料 또한 종류가 많아지고 수요량도 늘었다. 특히 西漢時代에는 金銀色顔料를 만들어 織物染色에 사용하였고²²⁾ 東漢이후에는 煉丹術의 발전에 따라 무기화학반응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수준에 달해서 인공으로 硫化汞을 합성하였으며, 인조된 硫化汞을 銀硃 혹은 紫粉霜이라 불렀다.²³⁾

둘째, 型版印花法과 彩繪技術이 結合하여 발전하였다. 凸版의 版印法은 춘추전국시대에 발전하여 西漢代는 이미 상당한 수준이되었다. 型版은 凸紋版(陽紋)과 樓空版(陰紋)으로 나뉘어 제작되었고 版印은 여러색으로 套染하며, 아울러 彩繪를 부분적으로 하여 화려한 직물을 만들 수 있었다. 長沙馬王堆에서 出土된 西漢時代의 印花敷彩紗와 金銀色 印花紗가 이러한 방법으로 染色된 대표직물이다.²⁴⁾

셋째, 蠟染法이 織物紋樣染色에 사용되었다. 秦의 말기에서 漢代에 걸쳐 西南지방의 소수민족인 苗族에게서 蠟染이 시작되어 南北朝時代에는 상당히 유행하였다. 「貴州通志」에는 “蠟染은 곧 초를 써서 꽃을 그리고 물감을 들인후 초를 없애면 花紋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데 주로 藍染을 한 青地에 白花가 그려져 “白花布” 혹은 “闌干斑布”라고도 칭하였다. 新疆民豐東漢墓에서 出土된 蠟染花布는 漢代에 蠟染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夾纈이 기법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漢代

17) 吳淑生 田自秉(1988), 앞책, p. 97

18) 「史記」貨殖列傳

19) 吳淑生 田自秉(1988), 앞책, p. 99

20) 앞책, p. 98

21) 「史記」, 封禪書

22) 陳維稷(1984), 앞책, p. 225

23) 吳淑生 田自秉(1988), 앞책, p. 99

24) 앞책, p. 100

陳維稷(1984), 앞책, p. 255

高漢玉(1986), 앞책, p. 22

의 夾纈 出土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事始」에서 인용한 「二儀實錄」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夾纈은 秦漢時期에 시작되었으며 陳梁에서 貴賤通服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南北朝 시기에 그 방법이 成熟하여 唐代에는 매우 유행하였다. 新疆于田屋于來古北朝墓에서 出土된 藍白花布는 당시에 夾纈藍白花布가 民間에 常用衣料였음을 의미한다.²⁵⁾

다섯째, 浸染 套染 媒染法이 상당히 발전하였기 때문에 紅, 黃, 藍의 三原色을 서로 套染해서 다양한 色名을 만들 수 있었다. 당시에 표현되었던 色들은 「急就篇」中에 西漢의 9種의 色調와 20種의 色名이 기록되어 있으며, 「說文解字」中에는 東漢의 10種의 色調와 39種의 色名이 기록되어 있다.²⁶⁾〈表 1〉

	西 漢	東 漢
紅色調	紅, 緋(淺赤), 纈(深紅) 絳(赤)	紅, 纈(淺絳), 緋(赤), 纂(似組而赤), 緹(絳) 絳(大赤), 精(赤), 緋(淺絳), 絳(純赤)
橙色調	緹(黃赤)	緹(丹黃), 縹(赤黃)
黃色調	郁舍(淺黃), 半見(黃白), 蒸栗(深黃), 緋(淺黃), 絹(淺黃)	絹(色), 緋(淺黃)
綠色調	綠緹(芬艾)	綠(青黃色), 緋(芬艾) 緹(萹草)
青色調	青, 縹(青白色)	縹(青白), 緋(青經縹), 總(青)
藍色調		縹(紫青色)
紫色調	紫, 紺(青而赤)	紫(赤青), 紺(青而赤), 縹(青而赤), 縹(青赤)
黑色調	皂(黑色)	緹(黑), 冢(做黑), 縹(青而赤), 縹(青赤色)
白色調	白約(白素), 紵(絹之精白者)	約(白約編色), 紵(白紵), 縹(白鮮色), 杯(白鮮色) 綖(白鮮色)
其他		縹(鮮色), 素(白致繪), 縹(繪彩色), 縹(繁彩色) 縹(青絲縹), 縹(降縹)

25) 앞책, p. 24

陳維稷(1984), 앞책, p. 274

26) 앞책, p. 250

27) 「新唐書」, 卷 四十八

28)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香港分館), p. 260

29) 佐藤武敏, 「中國古代絹織物研究」, F.(東京: 風聞書房), p. 212~214

4. 隋唐의 染色

漢대에 이르기까지 染色技術에 많은 발전이 있어 이미 상당한 수준의 染織物을 만들었으나, 兩晉에 이어 南北朝時期에는 染色에 있어서 약간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었다. 隋代에로 阿斯塔那에서 夾纈織物이 出土되기는 하였지만 染色이 그다지 활발하게 발전되지는 않았고 唐에 이르러 비로서 染織物의 제작이 사회적으로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이 時期에는 東西方의 무역왕래가 끊임없이 확대되어 染織物의 수요와 공급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색채와 문양표현에 새로운 양식을 나타내었다.

당시의 織物染色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染織物의 多量生産으로 染色作業이 專門化되었다.

長安과 名地方의 絹織物 特產地에는 織染署라는 宮殿의 織物工場을 세웠으며 織染署는 원칙적으로 小府監의 管轄하에 있었으나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織染署에서는 錦 羅 紗 縠 綾 紵 施絹 등의 品目을 染色하여 제작하였다.

점차로 織染署는 綾 錦坊, 內作使, 掖廷 등으로 세분화 되면서 綾과 錦을 주로 제작하였으며, 824년에는 染色만을 주로 담당하는 染坊使를 설치하였다.²⁷⁾ 孫愷의 「北里志」는 長安에 彩纈鋪가 있어 纈染의 生産을 專業으로 하였다고 한다.²⁸⁾ 이는 당시 纈染의 생산과 수요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色의 調和에 있어서, 침착하고 명도가 낮은 唐三彩와 더불어 暈縹法을 사용하였다. 唐代의 染織物에 표현된 色은 「大唐六典」에 기록된 바로는 青, 降, 黃, 白, 紫, 皂 등 6가지 色이 기본이 되며, 여기에서 다시 2차 3차색으로 나뉘어진다.²⁹⁾ 唐代의 대표적인 色은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綠, 茶, 白色의 染色術이 만들어낸 最古의 아름다운 色이며 그것은 어느 시대에도 만들어 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色들의 표현에서는

暈縹법을 썼는데 이것은 한가지 색을 짙은 색조에서 점점 옅은 색조로 혹은 옅은 색조에서 짙은 색조로 변화시키는 彩色方法을 일컫는다.³⁰⁾

셋째, 여러종류의 蠟染이 매우 발달하였고 대중화되었다. 蠟縹과 夾縹은 이미 漢代에 시작되고 있었으나 그 기술이 점점 성숙되어 唐에 와서는 防染白漿을 이용하여 4~5色까지 套染할수 있어 과거의 靑白花문양 일색에서 벗어나, 바탕천을 다양한 색으로 染色한후 花紋은 또다른 색으로 염색이 가능하여 화려한 직물염색이 이루어졌다. 夾縹에서도 樓空型版雙面防染의 印花技術이 널리 퍼져서 복잡한 문양표현이 가능하며 刺繡보다 가공이 쉽고 경비가 훨씬 적으며 藝術效果 또한 비교적 좋기때문에 과거에 자수를 사용하던 문양들은 蠟染으로 대신 할 수 있었다. 蠟縹와 夾縹이외에 絞縹도 유행되었다. 中國에서 絞縹의 시작은 新疆吐魯番阿斯塔那墓에서 出土된 降地紋縹織物로보아 晋代라고 생각되며, 南北朝時期에 成熟하여 隋唐代에는 민간 부녀들에게도 유행된 染色法이다.³¹⁾ 그 당시 絞縹은 보통 두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실을 사용하여 옷감을 묶어서 고정시킨후 染色하는 방법으로 못으로 묶인부분은 染色되지 않아서 색이있는 바탕에 흰꽃무늬가 생기며 暈染의 효과를 갖고있었다. 다른 방법은 곡식알을 옷감으로 감싸서 染色하여 각종도안의 작은 花紋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新疆吐魯番阿斯塔那 304號墓에서 출토된 唐垂拱四年(688年)의 絞縹 치마는 降紫 茄紫의 2가지 색이고 마름모꼴 網格圖案을 사용하였는데 網格에는 자연의 무늬를 형성해서 특수한 예술효과를 갖추었다.³²⁾

唐代的 染縹織物은 多數의 實物이외에도 같은 시대의 그림, 三彩陶塑내지는 벽화중에도 많이 나타나 있다. 張萱의 「搗練圖」중에 몇몇의 婦女子가 입은 染縹중에 蠟染이나 夾縹染에 속하는 치마

를 입은것이 있다. 또한 「虢國夫人遊春圖」에는 말타는 사람의 옷이 자수가 아니고 蠟染인 것을 볼 수 있다.³³⁾ 「唐史」에 기록된바에 의하면 “당시 부녀자들의 유행하는 의복은 靑碧縹을 입고 상고머리에 小花草를 신는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런 자료들은 唐代的 染縹기술이 매우 유행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³⁴⁾

넷째, 染料와 媒染劑의 종류가 더욱 豊富하여졌다. 赤色系의 色素로는 紅花가 많이 사용되고 선명한 紅花色를 내기위하여 礬鹽과 같은것을 매염제로 썼다. 「唐本草」에 “紅色의 매염제로 椿木이나 捨木의 재를 매염제로 썼다”고 하였는데 현대과학의 분석측정 결과 이런 나무들의 재에는 비교적 많은 양의 礬鹽化合物이 들어있음을 증명하였다.³⁵⁾ 紅色의 植物染料로 茜草와 紅花이외에 蘇木을 애호하였다. 蘇木은 西晋時期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茜草나 紅化보다는 역사가 짧으나 손쉽게 염색이 가능하므로 隋唐時期에는 民間에서 널리 사용되었다.³⁶⁾ 唐의 錦織生産으로 유명한 蜀(四川省)에서 산출된 蜀江錦에도 蘇木을 이용하여 降色을 染色하였다.³⁷⁾ 그밖에 黃蘗, 鬱金, 槐花등의 植物染料가 「神農本草經」이나 「新修本草」에 수록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唐代에 이미 黃色染料로 使用됐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植物染料이외에도 金銀色顔料가 발전되어 金銀泥 이외에 熟漆液과 같은 천연 접착제로 문양을 그린다음 접착제가 약간 마른다음 金箔이나 金屑을 그 위에 뿌리는 貼金印花法이 부녀들 복식에 널리 사용되었다.

Ⅲ. 古代 韓國의 染色

1. 上古時代의 染色

우리민족이 언제부터 染織物을 使用하게 되었는가는 遺物과 文獻의 부족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30) 李熙賢(1980), 「唐時代 絹織物의 紋樣과 配色에 관한 考察」,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p. 32

31) 陳維稷(1984), 앞책, p. 278

32) 吳淑生 田自秉(1988), 앞책, p. 163

33) 앞책, p. 165

34) 「新唐書」 輿服志

35) 吳淑生, 田自秉(1988), 앞책, p. 166

36) 陳維稷(1984), 앞책, p. 259

37) 布目順郎(1987), 「絹と布の考古學」, (雄山閣), p. 306

일찌기 織物을 만들고 染色을 하였음은 3세기에 쓰여진 中國古書 「三國志」 및 1세기 후의 「後漢書」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三國志」 夫餘傳에 “夫餘에서는 白衣를 崇尚하여 國內에서는 白布衣를 착용하고 出國時에는 繪繡錦綺를 착용하였다”고 하며³⁸⁾ 「後漢書」와 「晉書」에 “馬韓에서 金銀錦綺를 貴하게 여기지않는다”고 하며³⁹⁾ 이와 유사하게 「三國志」에서도 「韓은 金銀錦繡를 귀한줄 모른다”고 하였다.⁴⁰⁾ 이러한 몇가지 記錄들을 통하여 부족 국가시대에 이미 繪, 繡, 錦의 染織物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의 구체적인 染色方法은 알 수 없으나 錦은 여러가지색의 先染絲로 製織하여 문양을 구성하며, 繡또한 여러가지 色絲로 무늬를 수놓은 직물이기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絲를 多色으로 浸染하였을 것이다. 繪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발달된 그림 그린 옷감의 호칭으로⁴¹⁾ 夫餘에서 일찌기 직물에 그림을 그리는 繪染이 발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夫餘, 馬韓등의 부족국가 시대와 때를 같이하는 中國의 秦漢代에는 이미 染料가 풍부하고 전문적 染色기관이 있으며 繪染, 浸染등의 기법은 그보다 수세기 이전 周代에 行하여졌고 絲을 先染한후 製織하는 錦도 이미 춘추전국시대부터 보여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中國과 교류가 있었던 우리나라도 그와같은 정도의 染色知識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三國時代와 統一新羅時代의 染色

高句麗의 染織物은 文獻과 壁畫를 통하여 고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다. 「新唐書」 高麗條에 “王服五綵 白羅冠 白皮小帶… 大臣青羅冠 次絳羅冠”⁴²⁾ 「北史」 列傳에 “蘇骨多用紫羅爲之

服大袖衫 大口袴 黃革履…”⁴³⁾ 「舊唐書」에 “高麗樂工人紫羅帽飾以鳥羽黃大袖紫羅帶大口袴赤靴라”⁴⁴⁾ 하였다. 「三國志」 高句麗條에 “其公會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⁴⁵⁾ 「翰苑」 高麗條에는 “高麗記云其人亦造錦紫地纈紋者爲上次有五色錦次有雲布錦”⁴⁶⁾ 이라고 기록되어있다. 이상의 기록에서 高句麗에서는 紫色, 白色, 青色, 絳色, 黃色의 染織物이 사용되었으며 중요한 행사에는 錦繡의 織物로된 衣服을 입었다고 한다. 錦에는 五色錦, 雲布錦의 구체적 명칭이 있었고 그밖에 紫地纈紋織物이 적혀있다. 皮革제품도 白色, 黃色, 赤色등의 다양한 色이 보인다. 따라서 당시에 이러한 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茜草, 紫草, 藍, 梔子, 蠶草 등의 植物染料를 使用하여 浸染을 하였고 纈染도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가죽제품도 黃, 赤, 白으로 染色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革染기술도 상당히 발전되었을 것이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仁賢天皇때 고구려의 革工이 渡日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革染기술도 함께 전했다고 한다.

옛 記錄을 통하여 고찰한 고구려의 염색기술은 古墳壁畫의 衣服그림에서 뒷바침 되어질 수 있다. 실재는 이보다 다양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로 분간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녹색, 검은색, 붉은색, 황색, 자색, 백색, 청회색 등의 바탕천의 색상이 보이며, 문양의 종류는 點紋, 斜格紋, 唐草紋, 曲線紋, 雲紋 등이 있는데, 바탕천의 염색을 위하여는 浸染, 套染, 媒染을 행하였고, 문양은 型版印花法이 외에 夾纈, 蠟纈등을 使用했을 가능성이 높다.

百濟의 染織物에 대한 기록으로는 「三國史記」 百濟本記 古爾王 27七年에 “下令六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 十一品已上服緋 十六品已上服青”이라하여 品位에 따른 服色을 제도화하였으며 “王服紫大袖袍

38) 「三國志」, 卷三十 魏書

39) 「後漢書」, 東夷傳

「晉書」, 四夷傳東夷

40) 「三國志」, 卷三十 魏書

41) 閔吉子 「우리나라의 古代織物研究」 國民大學校論文集, 第17輯, 1980, p. 110

42) 「新唐書」, 卷二百二十, 列傳 高麗條

43) 「北史」, 卷九十四 列傳 高句麗條

44) 「舊唐書」, 卷白九十九 列傳 東夷 高麗條

45) 「三國志」, 卷三十 魏書三十 高句麗條

46) 「翰苑」, 東夷高句麗條

青錦袴 金花飾爲羅冠”⁴⁷⁾이라하여 王服의 설명을 하였다. 「北史」百濟條에도 “將德七品紫帶, 施德八品皂帶, 固德力品赤帶 季德十品青帶 對德十一品文督十二品階黃帶 武督十三品佐軍十四品振武十五品 剋盧十六品階白帶”⁴⁸⁾라 하여 品位別로 각각 다른 色帶를 하도록 했다. 또한 「舊唐書」百濟條에 “官人盡緋爲衣” 音樂志에 “舞二人紫大袖裙襦章甫冠皮履”⁴⁹⁾라 하여 官人과 舞人의 服色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紫, 緋, 青, 黃, 皂白 등의 염직물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고구려에서 보이는 染織物과 거의 유사하여 당시에 사용되었던 植物染料의 종류도 같았으리라 생각된다. 이와같은 백제의 染織發展 상황은 「日本書紀」에 記錄된 내용이 뒷받침되어진다. 神功皇后 46년에 百濟의 肖古王이 日本使者에게 五色彩絹을 보냈고, 應神天皇 14년에 백제의 縫女 眞毛律이 日本 衣縫의 始祖가 되었으며, 雄略天皇 7년 백제의 安定那가 韓錦을 製織하여 日本 錦部の 始祖가 되었으며, 欽明天皇 13년에는 幡蓋를 15년에는 好錦二匹 毳毼一領을 백제로 부터 받았다. 이는 백제에서도 이미 6세기 이전에 찬란한 染織物 織造가 가능하였고 이를 위하여 浸染 套染의 染色術이 상당한 수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문양을 위한 型版印花 및 纈染의 기록이 없어 당시의 染色技法의 종류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新羅의 染織物 記錄은 「北史」에 “服色 尙畫素”⁵⁰⁾라 하였으며 「三國史記」炤知麻立干에 “...其父衣之以錦繡 置舉 幕以色絹獻王”⁵¹⁾이라 하였으니, 신라에서는 일찌기 繪染이 있었으며 5세기경에는 上流階級에서 錦, 繡와 色絹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三國遺事」四佛山條에 依하면 眞平王 9年(587年)에 五色의 毳毼을 만들었다고 한다.⁵²⁾ 「三國史記」에 眞德王 4年에 “王織錦作 五言太平頌”이라하여

五言太平頌을 지어 錦을 짜서 唐에 보냈다고 기록되어있는데 「三國遺事」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自製太平歌 織錦爲紋”이라 하였다. 여기서 太平歌의 가사를 錦織에 무늬놓기 위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漢代 錦織에 많이 사용한 銘紋織成法, 型版印花法, 刺繡法중의 한가지일것으로 생각되는데 “自製太平歌 織錦爲紋”의 文句로 보아 文字를 직접 織成한 錦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그렇다면 이는 中國染織物 수준에 뒤지지 않는 650년경의 신라의 높은 染織物 수준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眞德王 5년에는 金總布를 만들어 唐에 보냈는데⁵³⁾ 金絲를 사용하여 布를 織造 하였으니 그 화려함을 넉넉히 상상할 수 있겠다.

新羅의 服色은 法興王때에 六部人服色을 品階에 따라 紫, 緋, 青, 黃으로 정하였고 眞興王때에는 色衿을 사용하여 직책을 구별하였는데 綠, 紫, 白, 緋, 黑碧 赤青黃의 색이었다.⁵⁴⁾ 이로서 6세기 경에는 靑, 黃, 赤, 白, 黑의 五色觀念을 넘어서 한층 복잡한 緋 綠, 紫, 碧의 間色을 染色하였음을 알 수 있다.

興德王 9年(834年)에 服飾 및 車騎의 禁制는 당시의 染色 및 織造의 發達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記錄으로 染織物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服飾禁制에서는 纈繡錦羅의 직물과 金銀泥, 夾纈의 染色을 금지하였으니 이것은 당시에 縹繡錦羅의 직물이 유행하였고 金銀泥 및 夾纈을 하여 문양을 표현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眞骨女는 赭黃을 금하고 六頭品女는 赭黃紫紫粉金屑紅를 금하고 五頭品女는 赭黃紫紫黃屑紅緋를 금하고 四頭品女는 赭黃紫紫粉黃屑紅緋減紫를 금하였다고⁵⁵⁾ 하는데 이상의 色名에서 赭黃은 광물 염료인 赭石으로 染色한 색이며 紫粉은 漢代에 만들어진 합성硃砂인 紫粉霜으로 염색한 색이고

47) 「三國史記」卷二十四 百濟本記

48) 「北史」卷九十四 列傳八十二 百濟條

49) 「舊唐書」卷白九十九 列傳白四十九 東夷百濟條

50) 「北史」

51) 「三國史記」卷三, 新羅本紀

52) 「三國遺事」卷三, 四佛山條

53) 「三國史記」卷五, 新羅本紀

54) 「三國史記」志職官下

55) 「三國史記」雜誌 第二 色服條

金屑, 黄屑의 색도 唐代에 貼金印花에 사용된 金屑과 같은 것으로, 옷감에 접착제로 문양을 그린 후 그 위에 금은가루를 뿌리는 방법으로 염색하였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직물염색용으로 식물염료이외에 광물염료도 중요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鳥獸紋紫皮靴를 금지한 조항에서는 가죽염색기술도 문양을 넣을 수 있을 정도까지 발달하였음을 알수있다.

車騎禁制에는 “眞骨이 타는 수레의 자리는 鈿錦·二色綾이하를 쓰고 연(緣)은 錦이하를 쓰고, 전후 휘장은 小紋綾紗縹이하를 썼는데 그 빛깔은 深淸, 碧, 紫, 紫粉으로 한다. 絡綱은 絲麻를 쓰는데 빛깔은 紅, 緋, 翠碧으로 하고, 걸단장은 絹布를 쓰고 빛깔은 紅緋 靑縹로 한다⁵⁶⁾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鈿錦의 직물은 金을 박아 장식한 金總布와 비슷한 화려한 錦織物일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휘장과 絡綱用 직물의 색名에서 靑色調가 深淸, 碧, 翠碧, 靑, 縹로 다양해졌다. 「說文解字」에 縹는 靑白色이라하므로 縹, 靑, 深淸의 차례로 명도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山海經」에 “碧即石靑”이라 하였으니 碧, 翠碧은 石靑이라는 銅礦石으로 염색한 綠色이 가미된 푸른색으로 생각된다.

말의 障泥用으로 眞骨과 六頭品은 麻油染을하고 五頭品은 紫油染을하며 六頭品女로부터 백성에 이르는 여자는 가죽을 썼다고하는데⁵⁷⁾여기의 麻油染과 紫油染은 직물에 기름을 입혀 방수효과를 갖는 염색방법이라고 생각된다. 中國에서도 秦漢 이래 씨앗에서 기름을 뽑아 漆과 혼합하여 직물에 입혀 油布를 만들었으며 隋唐代에는 黄油 紫油의 油布로 마차와 깃발에 사용하며, 隋煬帝때에는 塗油織物로 역사상 최초의 雨衣를 만들었다는⁵⁸⁾ 기록이 있으나 障泥用의 麻油染, 紫油染도 中國의 油染과 같은 방법일것이다.

그밖에 「三國史記」雜誌 職官中에 染織과 관련된 명칭의 부서가 기록되어 있어 당시에 織造 및 染色이 官營으로 행하여졌으며, 전문작업에 따른 분업이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다. 그 관서의 所管事를

文字의 의미로 미루어 보면 다음과 같다. 染谷典 染宮은 染色을 총괄하며, 攢染典은 染料를 거두어 들이는 일을하며, 漂典은 직물을 세탁하고 표백하며, 曝典은 직물을 정련하는 일을 하며, 紅典은 紅花染을 蘇芳典은 蘇芳染을 맡고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朝霞房은 朝霞紬와 朝霞錦을 織造하였을 것이며 朝霞錦은 魚牙錦과 함께 신라의 특산물로 唐에 보낸 기록이 있다. 그밖에 錦典, 毛典, 麻典에서도 각각 錦織, 毛織, 麻織을 織造하였을 것이다. 이와같은 각종 염직물 제작의 官營과 分業현상은 中國의 唐과 유사한데 당시에 염직물 제작이 국가의 중요한 일로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신라의 染織物에 사용되었던 植物染料를 살펴보면 紅典, 蘇芳典의 職官名에서 紅花와 蘇木의 사용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일본 正倉院에 있는 신라의 紫色氈의 뒷면에 있는 黑書의 “紫草娘宅 紫稱毛一...⁵⁹⁾이라는 文句로 미루어 紫草를 사용하여 紫染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신라초기부터 의학을 위한 本草學의 교류가 있었으며 통일신라때는 唐의 「新修本草」를 의학교육을 위한 교과서로 채용하였으니, 이러한 本草書의 수입으로 인한 신라인들의 本草學에 관한 지식은 상당하였을 것이며⁶⁰⁾ 이 本草書에 쓰여있는 藍, 茜은 물론 黃蘗, 鬱金, 槐花, 梔子, 薑草, 橡實등의 식물염료를 사용하여 靑, 赤, 黃, 綠, 黑을 염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우리나라 上代社會의 염색은 문헌 및 유물의 부족으로 발달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없으므로 당시의 中國染色을 고찰하여 상호비교하였다.

中國은 商周代의 甲骨文字에 염색과 관련된 기록이 보이면서 염색역사가 시작되며, 「詩經」등이 古文獻에 의하면 周代에 이미 染色을 하기 위하여 옷감을 정련 표백하고 藍, 茜, 紫草, 梔子, 薑草의 식물염료로 浸染을 하며, 赭石, 硃砂, 石黃, 黃丹,

56) 「三國史記」雜誌 第二 車騎條

57) 「三國史記」雜誌 第二 車騎條

58) 陳維稷(1984), 앞책, p. 286

59) 「正倉院寶物」, (東京國立博物館), 圖 66.

60) 朴明姬, “本草綱目に 나타난 染料植物의 染色性 研究”, 誠信女大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8.

銅礦石 등의 광물염료로 繪染을 하였다. 春秋戰國時代부터는 직물 출토품에 의해 繪染, 浸染은 물론 套染, 媒染, 型版染까지 발전되었음이 입증되었다. 漢代에는 이미 염색의 기초는 거의 확립되었으므로 염직물의 수요와 공급이 크게 늘었고 藍, 茜, 梔子, 紅花 등의 染料를 직업적으로 재배하여 염료수요량의 증가에 충당하였다. 또한 紅, 黃, 藍, 黑色染料를 套染하여 무려 39종의 色名이 보이며, 蠟染, 夾縵로 정교한 문양의 고급직물 제작도 가능하였다. 隋唐代에 이르러서는 漢代의 염색기반에 화려함이 일층 가해진 염색이 이루어졌으며, 고도의 기술발전으로 염직물의 다량생산이 가능하여 특수층만이 아닌 민간 부녀들에게도 縵染 및 貼金印花를 한 염직물이 유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염색은 自然發生的인 것도 있겠으나 他國과의 무역관계와 전쟁에 의한 流民관계가 염료와 염색기술에 영향을 끼친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염색이 시작된 확실한 年代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 알 수 있는 染織物에 관한 最古의 기록은 3세기에 쓰여진 中國의 「三國志」이다. 그런데 「三國志」 韓傳의 내용은 대략 서기 196~265년경의 우리나라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그중 夫餘條, 高句麗條, 馬韓條에 繪, 繡, 錦의 染織物사용이 기록되어 있으니, 적어도 3세기 이전부터 식물성염료 및 광물성염료를 사용하여 浸染과 繪染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된다. 中國에서는 이미 春秋戰國時代인 기원전 8세기부터 繪, 繡, 錦이 있었고 3세기경에는 이미 染色의 기초가 거의 확립되어 30여색의 染色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아 西周 이래 中國과 특산물 교류 및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夫餘, 高句麗, 馬韓에서도 베와 비단을 짜고 여기에 繪染, 浸染을 하여 錦, 繪, 繡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三國時代에는 赤, 靑, 黃, 緋, 絳, 紫, 綠, 白, 黑, 白, 碧色의 染織物이 있었으며 통일신라에는 위의 색 이외에도 赭黃, 紫粉, 金屑, 黃屑, 深靑, 翠碧, 縵의 染織物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색을 染色하기 위하여 藍, 茜, 紫草, 梔子, 薑草, 黃蘗, 鬱金, 槐花, 橡實, 紅花, 蘇木의 植物染料와 赭石, 紫粉霜, 銅礦石, 金粉 등의 礦物染料가 쓰였을 것이다. 당시의 염색기법은 상당히 발전하여 浸染은 물론 套染 媒染을하여 바탕천을 염색하였고, 문양표현을 위하

여 繪染은 물론 蠟染, 夾縵, 絞縵 및 金銀箔과 같은 貼金印花染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특수염색으로 防水織物을 위한 麻油染, 紫油染을 하였으며 가죽제품을 위한 革染이 발달하였다.

문헌에 기록된 韓國 古代 染織物의 色相의 종류는 中國에 비하여 부족하지만, 染色技法은 통일신라에 와서는 거의 中國과 같이 발달하여 각종 縵染과 金銀泥는 물론 油染, 革染도 하여 다양하고도 화려한 染織物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용되었던 色相의 명칭과 染色의 方法은 中國의 染色에 관한 기록에서 대부분 찾아볼 수 있으므로 古代 韓國의 染色文化는 中國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문헌을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의 고대 염색사를 정리 비교하였는데 출토직물의 부족으로 한국에 관한 부분은 약간의 문헌기록과 중국염색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염색발달 과정을 유추했다. 「문화재관리국 발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경주 皇南洞 天馬塚에서 錦으로 추정되며 金箔을 한 흔적이 있고 金絲로 繡놓은 직물이외에 30여점의 직물이 나왔으며, 皇南洞 98호 古墳에서는 4-5세기의 朱色의 고운 섬유가 白樺樹皮로 만든 冠帽 표면에 부착되어 출토되었으나 현재 구체적인 염색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이와같은 實物資料를 분석하여 고대 한국 염색 및 직물 발달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여야 될 것이다. 문헌 및 실물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본 내용도 점차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韓國書〉

金富軾 著, 金鍾權譯, 「三國史記」, 서울: 明文堂, 1988.

閔吉子, “우리나라의 고대직물연구”, 「국민대학교 논문집」, 제17호 1980.

朴明姬, “本草綱目に 나타난 染料植物의 染色性 研究”, 성신여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8.

李熙賢, “唐時代 絹織物의 紋樣과 配色에 관한 고찰”,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0

一然 著, 李民樹譯, 「三國遺史」, 서울: 乙酉文化

社, 1989.

〈外國書〉

「北史」,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史記」, 李相玉譯, 서울: 明文堂, 1987.

「三國志」,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書經」, 權德周譯, 서울: 惠園出版社, 1988.

「新唐書」,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周禮」

「普書」,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後漢書」, 서울: 景仁文化社篇, 影印本, 1977.

高漢玉, 「中國歷代織染繡圖錄」, 上海: 科學技術出版社, 1986.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1981.

吳淑生·田自秉, 「中國染織史」, 台北: 南天書局, 1988.

陳維稷, 「中國紡織科學技術史」, 北京: 科學出版社, 1984.

布目順郎, 「絹と布の考古學」, 東京: 雄山閣, 1987.

佐騰式敏, 「中國古代絹織物研究」, 東京: 風聞書房, 1980.

「正倉院寶物」, 東京: 東京國立博物館, 1981.